|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| **보도자료**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<br>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---|
| **2012년 10월 4일(목) 석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자료문의 : 산업인력팀 윤요한 팀장(2110-5168), 김상우 사무관(5167)<br>산업경제정책과 정대진 과장(2110-5111), 차세운 사무관(5115) | | |

# 지식경제부, 일자리와 내수 "양대 숙제" 해결에 나서다

## - 지경부장관 서울디지털단지 방문, 산업현장 內 애로 논의 -
## - 「일자리 창출·유지 강화방안」과 「내수활성화 방안」 발표 -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월4일(목) 오전 서울디지털단지 내 입주기업(성호전자(주)*)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과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

* 성호전자(주) : `73년 설립, 종업원 120명, 필름콘덴서·전원공급장치(PSU) 생산 (금년 4월에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) ※ 현장방문 개요는 [붙임] 참고

□ 홍 장관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우리 산업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3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경영자 한분 한분의 노고 덕분임을 언급하면서, 중소기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함

○ 다만, 지난 9월 한달간 민생현장을 집중 점검*한 결과, 일부 기업과 서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

* 지경부는 9.6-9.26일간 지역별 '현장공감형' 방문활동을 진행, 장·차관 포함 부내 간부들이 지역 중소기업·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민생현장 실태 점검

-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밝혔음

□ 이날 간담회에서 성호전자(주)는, 우수 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-구직자간 매칭 지원, 인력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,

○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, 적절한 내수 진작책을 통해 경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



□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·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한 업계와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,

○ 앞으로 지식경제부가 이 "양대 숙제"의 해결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히고, 그 출발점이 될 「일자리 창출·유지 강화 방안」과 「내수활성화 방안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

## ≪산업 · 지역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· 유지 강화 방안≫

* 상세내용은 **【별첨1】** 참고

□ 지식경제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산업·지역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·유지 강화 방안」을 마련하고, 이를 10.2일 국무회의 (제42차, 총리주재)에 보고

* 지난 3개월간 산업경제실장 주재 '일자리 대책 T/F'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 (관련 전문가 50여명 참여)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고용이 회복되었으나, 고용창출력 저하·투자 위축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

○ 그간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산업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,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·지역 정책 차원의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

□ 이번 정부 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,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 제고, 일자리 친화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산업·지역 정책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전환

□ **첫째**, 우수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매력적인 기업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

○ 지역으로 찾아가는 캠퍼스 리쿠르팅과 중소 협력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채용박람회를 확대하고, 근로조건·성장성·미래비전 등 근무환경이 우수한 강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기능 강화

* 하반기 중 15회 내외의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전매칭을 통해 실제 채용 연계을 제고
* '중견기업 포탈'과 '스마일스토리보드' 오픈, 일하기 좋은 기업 정보 앱 보급 등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'인적자원개발협의체(SC: Sector Council)를 확대 개편하는 등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으로 전환

* SC 1.0 : 협회·대기업 위주 구성, 단순 회의체로서 사업 추진력 미약
→ SC 2.0 : 중소·중견기업 중심 (구성원의 60% 이상), 취업상담 기능 보강

- 아울러, '산학협력 선도기업' 육성을 통해 대학과의 공동기술개발, 대학생 실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현장의 인력 양성기능 강화

○ 기업간 보상 격차 축소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상의 인센티브 부여

* 대-중소기업간 주거·건강·학비보조 등의 복리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
·'11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비중 (%) : (주거) 41.8, (건강) 25.2, (학비보조) 17.6 등

*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지원을 동반성장지수 가점항목에 포함

-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'산학융합지구 사업* 확산', '산업기술장학금 지원' 등을 추진

* 현재, 반월시화, 구미, 군산, 대불, 오송 등 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, 금년 내 1개 추가 지정

□ **둘째,** 신규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 창출형으로 전환하고, 국내 투자활력 회복에 주력

○ 금년 하반기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「산업 비전·전략 2020*」 수립과 「업종별 일자리 예보제**」 시스템 구축을 추진

* 제조업, 서비스업 등의 산업 전반에서 미래일자리 창출형 유망산업을 선정하고, 산업별 시장전망·일자리 창출효과 및 각 산업별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

** 기업 (대·중소), 직종(사무·연구개발), 근무형태 (정규여부), 학력(고·대졸) 등 「업종별 채용계획과 인력부족 전망」을 발표

○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U턴 기업*에 대한 지원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)을 확대하고, 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확대

* 지난 8월 전북 (익산) 지역에 14개 주얼리 기업이 U턴하여 3천명 신규 고용창출 전망
·금년 하반기 중 패션·의류·신발 등의 업종 추가 유치 지원

* 복합리조트, 외국 의료·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등



○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* 등의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,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적용 활성화

* 지역별 고용목표 달성도 (10% 배점)를 고려하여 지역사업 예산을 차등 배정

-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생활 직결사업과 新사업 분야의 인력확충을 검토하고, 고용여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* 유도

* 공공기관 구매 계약시 고용 창출 우수 협력 기업 우대, 지역 일자리에 해당지역 학생 우선 채용 (지역대학·특성화고와 MOU체결, 인턴쉽 제공, 장학금 지원 등)

○ 청년층의 새로운 도전 기반 조성을 위해 멘토링과 연계한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전담교원 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

* 일정 기간 (3~6개월) 창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「사관학교식 창업지원사업」 신규 도입

- 글로벌 Job Market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별 일자리 정보의 발굴·제공과 소규모 단위 채용박람회 개최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

* Kotra 해외 지사장 업무평가 등에 해외 취업지원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

□ **셋째,** 일자리 창출·유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, 부처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 등의 정책 인프라 구축

○ 청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간 매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·기업혁신기관(지방 중기청, TP, 지역상의, 산단공 등)·고용센터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,

* 워크넷(고용부), 테크포스넷(지경부)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중기청)간 DB 연계 검토

○ LINC 사업과 광역선도사업 연계, 내일배움카드제 운영시 기업 수요 반영, 기업탐방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사업 등 부처간 사업 연계 노력 확대

* LINC대학에 제공할 지역우수기업 정보DB 구축('12년 1,000개 → '14년 3,000개)

□ 정부는 상기 정책과제를 통해 산업·지역 정책을 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약 5만명 (+α)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확보

○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유기적인 협력·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, 일하고 싶은 국민 모두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부여

## ≪지역 · 서민 · 중소기업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≫

* 상세내용은 **【별첨2】** 참고

□ 경기 불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**지역·서민·중소기업** 3대 분야의 체감 내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, 내수활성화를 위한 **"3活 과제"** 추진

※ (지역) 활력있는 우리 지방, (서민) 활짝웃는 우리 이웃, (중소기업) 활기찬 우리 회사

○ 민간 투자의 유도, 규제 완화, 절차 개선 등 제한적 재정투입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 위주로 발굴하였으며,

○ 지속적인 현장점검, 업계와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

□ **(지역)** 지역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,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강화하며, 지방 에너지인프라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

① 산업단지 복합공간화 프로젝트(QWL밸리)를 전국 주요 산단으로 확산, 산단의 리모델링·첨단화를 위한 민간 투자자금을 유인하고 정부의 SOC 투자도 촉진하는 한편,

* 주거시설 등 수익성사업 ⇒ 민자유치 * 교육연구기능 확충 등 공익성사업 ⇒ 정부 출연/보조

- 업종별 입주구역을 폐지하고 지식서비스 5개 업종의 추가 입주를 허용하며, 열병합발전소 입주 허용도 추진하는 등 산단 산업시설 구역 내 입주 규제를 완화

② 지자체별 지원가능 특화업종을 확대하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개선, 보다 많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,

- 공장설립시 인·허가 신청서의 간소화, 지자체의 서류 중복요구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기간·절차를 50% 이상 단축

③ 지방 미착공 발전사업(3건)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원하며,

* 발전사업(3건) 진행시, 지역 내 총 7~8조원의 투자 및 4~5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

- 산업단지 내(공장지붕 등)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시범사업, 도서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실증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

* 산단 Sun Roof Belt 프로젝트(창원 시범사업 실시), 녹색자립섬 구축 실증사업



□ **(서민)**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, 발전소 주변 지역 등 특수한 민생지원 수요에 대한 정책적 배려 확대

① 지경부와 산하공공기관(60개)의 `12년 온누리상품권 구매 규모를 17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, (※`11년 구매규모 : 167억원)

- 온누리상품권 취급은행* 추가 등을 통해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 제고

* `11년 9개 은행 → `12년중 우리·농협 추가 추진중

② 발전소 주변 지역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며,

- 사회적 약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R&D과제("따뜻한 R&D")도 추진

* 과제(안) : 국민안전 방범창호시스템, 어린이 보호 위한 비상호출기기 등

③ 일자리 창출, 고용 개선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기반 확충

* 상세 내용은 상기 「일자리 창출·유지 강화 방안」 참조

□ **(중소기업)**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, 우수 인재를 중소기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, 업계 애로해결에도 적극 매진

① 부지확보 및 이전자금 지원 등 단체 이전을 희망하는 뿌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

* 단체이전 뿌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방안 마련 등 (중기청 협의)

- 해양플랜트기자재 업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,

*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,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촉진 위한 설명회 개최 등

-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여, LED조명 초기시장 창출을 촉진

② 기술창업 CEO 출신 인재들이 중소기업 경영멘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, 특히 금융위기 때 도산한 CEO들을 적극 활용

* 다수의 기술창업CEO가 금융위기로 도산하여,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사장

③ 9월에 실시했던 민생현장방문 활동의 후속으로, 업종별 기업 밀집 지역 중심으로 민간단체(업종별 협회 등) 주도의 점검활동을 진행하며,

- 현장점검 등으로 접수된 기업의 애로·건의사항 중 미결 과제는 분야별(입지·금융·인력 등)로 종합·정리 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

# 【붙임】 기업 현장방문 개요

□ **목적**

○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, 투자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논의

□ **일시 :** ‘12. 10. 4(목), 08:30 ~09:15

□ **장소 :** 성호전자 (서울디지털단지 입주기업) 회의실

□ **참석자 :** 총 14명

○ 지경부 (4) : 장관, 산업경제실장, 산업인력팀장, 담당사무관
○ 산단공 (2) : 이사장, 서울지역본부장
○ 입주기업 (8) : 박환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

< 방문 기업 개요·특징 >

| 기업명 | 현황(‘11년말) | 특징 |
|---|---|---|
| 성호전자 | ○ 수출액 : 9,410만불<br>○ 생산액 : 1,097억원<br>○ 종업원수 : 120명<br>○ 자본금 : 143억원<br>○ 주력품목 : 필름콘덴서, 전원공급장치 (PSU) | ○ ’12.4월 지경부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<br>○ ’02.11월 IT화 지원사업 ERP부문 최우수기업 선정 (산자부)<br>○ ’83.1월 수출 1백만불탑 수상 |

□ **세부 시간계획** (총 45분)

| 시 간 계 획 | 내 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08:30～08:35(5‘) | 현장 방문 (연구시설 등) | 방문 후 간담회장 |
| 08:35～08:40(5‘) | 인사말씀 | 장관 |
| 08:40～08:45(5‘) | 성호전자(주) 현황소개 | 성호전자 |
| 08:45～09:10(25‘) | 간담회 (일자리 및 투자활성화 관련 애로사항 등) | 참석자 전원 |
| 09:10～09:15(5‘) | 마무리 말씀 | 장관 |